

한국출판평론상 학술부문 최우수상 받은 교수 부.길.만.

우리 출판의 뿌리를 밝힌 '방각본' 연구,
아직도 연구에 배고픈 출판학자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부길만 지음 | 서울출판미디어 | 240쪽 | 값 20,000원

정조 즉위 2년째인 1778년, 장안을 뒤숭숭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당대 최고의 매설가 청운몽의 소설인데... 김탁환 소설 《방각본 살인 사건》의 골격이 여기서 발생한다. '방각본'이란 청운몽의 소설을 말하는데, 곧 조선시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출판사업이 성행했던 말인가. 얼마간 낯선 방각본에 대한 물음은 이제 접어들어도 좋다. 동원대학 출판미디어과 부길만(53) 교수가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를 통해 한국출판의 뿌리인 방각본의 의미를 속속들이 밝혀냈다.

“현대 출판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상업출판이어야 현대 출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각본을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지학이나 국문학 중심으로 방각본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는데, 저는 출판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조선시대 상업출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정부 출판물인 관판본을 함께 살펴본 것은 그런 이유에서죠.”

서지학에서 이미 앞을 터놓은 터라 집필초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연구를 진척시키면서부터 그는 난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방각본 출판의 영역이 철학, 종교, 정치, 문학, 가정학, 군사학 등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던 까닭이다. 마치 늪에 빠져 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지 오래, 그는 자세를 가다듬고 전국 대학과 공공도서관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해 방각본 연구를 진척시켜나

갔다. 책이 나온 뒤 과거 방각본 출판이 성행한 전주와 안성 등에서 지역문화의 전통을 찾겠다며 공동연구를 제의해와 연구자로서 보람이 크다고 함소를 짓는다.

“지난달부터 학과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학생 논문을 지도했습니다. 몸 생각도 않고 보름 동안 밤샘작업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너희들 역시 학문의 세계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겠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인터넷소설 출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2002년~2003년 10대 인기소설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집이 나왔는데, 사회적 파급에 비해 대접받지 못한 분야를 다루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지만 국내 최초로 성과를 밝힌 연구기도 합니다.”

사건제전師傳弟傳이다. 스승이 방각본 연구를 통해 활발하지 못했던 국내 출판의 기원을 밝히고 나니, 그에 질세라 제자들도 미개척 영역인 인터넷소설 출판을 서슴없이 밝혀낸다. 스승과 제자 간 출판기획의 우열에 있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지만, 저작에 대한 열정만은 부길만 씨에게 마음이 기운다.

“필사본부터 현대 전자출판물에 이르는 책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대중적인 출판역사서를 써볼 계획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출판 역사를 함께 다룰 생각인데, 한국인의 시각에서 세계출판문화사를 서술해 우리 출판문화의 세계문화사적 의의를 밝혀보고 싶습니다. 그림과 사진을 많이 넣어 일반인들도 흥미를 갖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출판문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책 서문에서 밝힌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는 스케줄을 잡지 못해 미뤄두고 있지만, 이상비대현상을 보이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푸는 과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됩니다.”

히딩크 식으로 말하면 “부길만 씨는 아직도 연구에 배고픈 사람”이다. 한편 그는 최근 출판문화의 뿌리를 명쾌하게 밝힌 이번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로 2003년 한국출판평론상 학술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가치 있는 학술성과를 주목한 것이기도 할 테지만, 순수한 학문 열정에 대한 답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학교 해외문화탐방 스케줄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출판학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

취재 박용두 기자